

2018년 6월 17일 주일설교 연세대학교교회

화해의 직분(Agent of Reconciliation)

(고후 5:13-21)

해방 이후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70년 동안 지속된 남북 분단의 한을 품고 오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주,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반도의 이념적 갈등과 전쟁을 종식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북미 정상 간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전개될 평화정착 과정을 논의한 뜻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남북 간 북미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오래 된 적대적 갈등과 핵문제를 해소하고 전쟁상태를 종식하여 화해를 이루어 내는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화해로 귀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신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종 간, 종교 간, 국가 간, 그리고 지구환경 전반에 걸친 갈등과 폭력, 그리고 파괴와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살림의 역사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선교적 행위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21-22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은 아들 예수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제자들, 즉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타락한 인간과 깨어지고 분열된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보냄 받은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고난과 갈등의 현장에서 살림의 역사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이며 사회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Rene Girard)만큼 인간의 본질적인 모방적 욕망(mimetic desire)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한 학자도 드물 것입니다. 지라르는 많은 문학작품 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신화 그리고 성경 이야기들에서 모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경쟁과 갈등 그리고 파괴와 폭력과 죽음의 문화를 폭로합니다. 그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상화된 경쟁,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경쟁으로 인한 죽음의 경제와 정치와 환경 문제를 극복할 대안적 실마리를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방적 동물이고 모방을 통해 학습하고 습득하며 공유하므로 문화를 형성합니다. 지라르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제의적인 종교문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현대 문화가 무고한 희생양에게 모방적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자신 내부의 경쟁을 억누르고 일시적인 안정과 평화를 이루지만, 결국 끊임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그 실례를 디오니소스의 혼음난무의 살해의 제의 니체의 무신론 철학 그리고 나치즘의 유대인 학살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종교와 문화 속에 내재한 갈등과 모방적 폭력, 그리고 무한 경쟁이 초래하는 죽음의 정치와 경제를 폭로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계시적 종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무고한 희생양에 대한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에 연약백성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이 표현하는 세속적 욕망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imitatio Christi*)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들로 보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출 19:5-6)이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벧전 2:9)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농업, 환경 등 모든 공적인 영역들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범적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바울의 고난의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전 15:3-4)는 주장으로 요약됩니다(롬 8:34; 고후 13:4).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강하게 압박하며 몰아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역에서 수많은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확증하며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5:14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해 꼼짝 못할 정도의 강한 사랑의 힘을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5:18-21에 나오는 화해와 연관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신했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을 결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롬 1:4). 빌립보서 2:5-11의 빌립보 찬가는 모방적 경쟁을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상승운동과는 정확히 반대의 방향인 수치와 고난의 하강운동, 즉 성육신(요 1:14)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5:15b).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옛 성품이 지배하는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기자랑, 자기사랑, 자기 의와 같은 성향들은 항상 타인을 모방하는 경쟁을 통해 쟁취하는 과정 가운데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악 된 옛 자아가 지배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하여 죽고(롬 6:23),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깨달음(5:14.15)은 새 생명의 수혜자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5:15c).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결과는 거기에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옛 자아를 버리고**(갈 2:20), 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롬 14:7-9).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고(2:10), 화해의 손길을 보내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11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화해를 청합니다.

바울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만, 강함과 보이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그

의 반대자들에게 사도의 자격을 의심받습니다. 반대자들의 눈으로 보기에, 소위 능력 있는 사역자란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으로 도배되는 삶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약함의 원리와 역전과 전복의 원리가 작용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끄심을 받고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한 복판으로 보냄을 받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고전 1:23-24). 복음의 역설과 십자가의 약함의 능력은 “세상이 자랑하는 강함,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부끄럽게”(고전 1:27) 합니다.

예수께서 모두를 위해 고난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난과 박해로 점철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실제로 우리 민족이 겪는 고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도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온 힘과 마음과 몸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관계의 회복과 화해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화/평안(shalom)은 관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에베소서 2장에서 “전에는” “그 때에”라는 과거시제와 “이제는”이라는 현재시제를 대비시켜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1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행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엡 2:2)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엡 2:12)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13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십자가의 죽음)로 허물어 버리고(14절)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15절)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16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19-23에서 십자가로 인한 화평을 말하며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세계의 화해를 하나님의 경륜(God's economy)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경제는 **살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집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재화와 연관된 경제적인 행위를 넘어서 생태적이며 영적인 행위입니다. 살기는 “살림”과 연관됩니다. 살림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셔 들인 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함”(reside), 내주함(indwelling)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하나님의 살림인 하나님의 경제와 예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 받고 보냄 받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신으로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적 윤리가 없다면 성경적 선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인해 더 이상의 죽음과 폭력의 모방과 전염적 확산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국가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불가피한 대가인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며 사신들입니다. 보냄 받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살림의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소명과 헌신을 통해 사회와 문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로 가득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